

분단현실을 보는 재일작가의 시각

李恢成의 「禁斷의 땅」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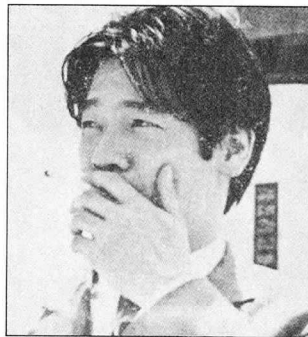
任軒永
문학평론가

1970년대 군부통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에 맞선 역사의 변혁주체 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란 문제는 관찰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80년대의 민주주체적 관점은 이미 전태일의 분신사건을 70년대 변혁운동의 기점으로 삼아 농민·노동자를 중심한 역사의 변혁의지를 그 주류로 삼고 있다. 60년대 이후 경제적 근대화라는 신화로 내몰아쳤던 군부독재의 불평등이 10년만에 위기를 맞게 되고, 그 위기는 유신독재라는 새로운 탄압구조를 만들도록 변한다.

70년대 변혁주체세력의 성격

집권층은 이무렵 경제적 성장복음과 남북문제에서의 장미빛 환상을 염가판매하면서 역사의 변혁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병행시키는 일로 그 권력유지책을 삼았다. 이에 대항하는 변혁주체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자들과 토착적인 사회주의(여기에는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등 여러 이념들이 포함될 수 있다)를 지향하는 세력, 그리고 어떤 뜻에서는 북한의 노선에 따르는 세력들이 없지 않았음을 「금단의 땅」은 밝히고 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된 종교계나 지식인·법조계 등 중산층 이상의 신분계층을 주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분세력들은 문화·언론·교육·신앙·예술 등 여러 운동을 통하여 군부독재의 종식을 위한 싸움에 나섰다. 이른바 70년대 명망가운동의 선두집단을 대표하는 세력들이었다.

이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회의로부터 냉전체제의 극복과 통일지향을 위한 민족문제의 근본적 해결까지를 포함한 반독재 민주화운동 세력은 이미 70년대에 접어들어 명망가 중심의 운동권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다. 4·19주체세력이었던 등장인물 박채호로 상징되는 이들은 이미 분단고착화의 냉전체제가 만든 반공의 틀을 깨어내지 않는 한 민주화는 없다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반유신헌법과 그 대표성으로서 박정희 개인의 퇴진에 초점을 맞춘 투쟁을 전개했다면, 박채호와 같은 세대의 변혁주체들은 다분히 이념과 지배층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을 민주화운동의 기본 자세로 보고 있다. 작가가 '토착사회주의' 또는 '자생사회주의'라고 이름붙인 이들 변혁추진세력들은 그 정신적 뿌리를 자주적인 개



「금단의 땅」의 작가 李恢成씨

로 북한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뜨거운 애정

이 세가지 반유신독재의 변혁운동 세력 중에서 작가 이회성의 정서적 친근감은 두번째로 기울고 있음을 이 소설은 은연중 풍기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이나 대남전략에 대한 실망감은 토착사회주의 세력의 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진되고 있지만, 가장 치열한 장면은 역시 같은 당원인 나도경·나경리 남매의 대화에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한사람은 모두가 쇠사슬에 묶여, 숨을 쉴 때도 지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거야. 독재가 이 지경까지 왔어. 이럴 바에는... 설사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5백만 명이 목숨을 잃더라도... 5천만, 아니 자손까지 포함해서 1억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날이 온다면, 전쟁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게 차라리...” 이렇게 더듬거리는 나도경의 말에 나경리는 “어머나”라며 ‘불신이 담긴 눈초리’로 오빠를 쳐다본다. 그녀는 “그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요? 정말로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라고 되묻는다(2권297쪽). 이

화파에서 찾을만큼 민족사에서의 도도한 큰 흐름을 이룬 것으로 풀이한다.

더구나 재일교포 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주인공 조남식을 비롯한 그 주변인물들에서 느끼듯이, 토착사회주의 세력은 그 사회적 신분계층으로는 자유민주주의세력과 겹친다고 할만큼 튼튼한 중산층을 배경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내 중산층 중 민족과 계급의식에 눈뜬 각성된 세력과 재일교포 중 이들 맥을 함께하는 세력이 맞손을 잡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채호·조남식·김치열·오창수 등은 다 이런 분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통일과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격렬한 비판의식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작업으로 일관한다. 상식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독재체제와 세습제 권력양 방법을 비롯하여 개인승배를 바탕으로 대남전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이들은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다.

다른 한 유형의 혁명지향 세력을 상징하는 나도경과 나경리 남매는 통혁당 재건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노선에 충실한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에서 내려온 요원인 고용업을 안내하며 그 지지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박채호 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는 직접적인 ‘일’로서의 관련성은 맺지 않는다. 고용업을 만난 박채호는 노골적으

어 그녀는 6·25에 대하여 “그건 역시 ‘조국해방전쟁’이었나요? 아니면 ‘조국방위전쟁’이었나요?” 라고 다그친다(3권 143쪽).

전쟁고아 출신인 이 남매가 비록 북한노선의 지하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전쟁’관에 대하여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작가 이회성이 지닌 일본에서의 정치적 입장과 맥을 함께 한다. 그는 조적보다는 민족적 양심에 따라 활동해오면서 7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민주화운동의 뜨거운 벗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본에서 분명히 조총련과 한계선을 긋고 있었으며, 그의 세련된 미학적 감수성에는 조국인 남북한이 저마다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비쳤다. 그의 조국에 대한 애정은 남북한을 함께 비판하는 것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미 말미암아 그는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포의 시각이란 한계 가져

이 작가가 받고 있는 조국으로부터의 확대현상이 바로 「금단의 땅」의 주인공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70년대 군부독재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사회)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북한동조 지지이념들을 전연 구별하려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그럴 능력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박채호나 조남식은 온갖 가혹한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독재투쟁을 위한 모든 세력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되며, 이는 점점 상승하여 반독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것으로 치닫게 됨을 「금단의 땅」은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진짜 토착적 변혁세력들의 시선으로는 성에 차지않는 점이 상당히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뭔가 고통이 현장성을 벗어난 교포의 시각으로 관찰되어진 느낌이 라든가, 변혁주체 세력들로 명망가 중심의 문학예술인을 너무 미세한 점들은 다분히 일본적 지식인·언론풍토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직감케 만든다.

이제 90년대를 바라보면서 「금단의 땅」은 우리 앞에 재연되려는가, 아니면 역사적 유물로 폐기될 것인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오늘의 변혁주체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단의 땅」의 공포의 망령이 되살아날지 영원히 묻히게 될지는 판가름날 것이다.